

'제8회 글로벌 영 아카데미(Global Young Academy, 이하 GYA) 총회 및 컨퍼런스 (8th Annual Conference and General Meeting of the GYA)'가 5월 8일부터 11일 까지 태국 파타야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영원한 젊음? 과학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장수(Forever Young? Sustainable and Healthy Longevity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를 주제로 펼쳐졌다. GYA의 초청을 받아 참관한 최승홍 서울대학교 교수(차세대한림원 회원)의 출장보고서를 요약 전달한다.

GYA

/// 제8회 글로벌 영 아카데미 총회 ///

글로벌 리더십 확보 위한 젊은 과학자들의 교류의 장



오픈 행사

GYA는 2010년 2월 국제한림원연합회 (IAP)와 독일레오폴디나한림원, 폭스바겐재단, 독일영아카데미 등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200여 명의 우수한 각국 젊은 과학자들이 회원으로 선발되어 있다. IAP가 2008-2009 세계경제포럼의 여름 다보스 미팅을 위해 소집한 젊은 과학자 모임이 정식기구로 출범한 것. GYA의 회원은 박사 학위를 받은 후 3~10년 이내 40세 이하의 과학자들 중 연구업적과 사회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활동 임기는 5년이다. 현재 216명의 졸업회원을 포함, 83개국을 대표하는 회원들이 협력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찾고 정책개발, 과학 기반 교육, 국제 문제 등에 대해 젊은 과학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례총회, 여성회원 비율 43%까지 올려 자축 컨퍼런스, 노화 및 장수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 시도

5월 8일에 열린 GYA 연례총회는 회원들만의 내부 회의로, 지난 GYA의 활동을 공유하는 정보박람회, 내부보고 및 토론 등이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또한 2018년 새롭게 선정된 신입 회원을 환영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번엔 선출된 45명의 신입 회원 중 여성은 23명이었는데 GYA 회원의 여성 비율을 43%까지 끌어올렸음을 자축하는 분위기였다.

이어 9일부터 이를 동안 진행된 컨퍼런스에서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노화'를 주제로 '개인에게 건강한 노화의 의미', '건강한 장



▲ 갈라 디너 파티

◀ 다양한 주제의 발표 화면



최승홍 교수(가운데)가 GYA에서 만난 일본의 요코·아키히로 박사

수를 위한 공동체, 모든 연령대를 위한 공동체' 등 두 개의 패널로 나뉘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2008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하랄트 추어 하우젠 독일 암연구소 박사도 감염과 암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젊은 과학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최승홍 교수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노인 보건 정책을 논의했던 세션. 최 교수는 "일본과 케냐의 노인 보건 정책을 같이 발표했는데 국가·사회적 기반의 중요성이 잘 드러났다"며 "일본은 병원 치료가 끝난 후 사회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되지 않아 가정에서 사망하는 노인을 위해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노인층 케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비해 케냐는 노인 문제에 대한 국가적 움직임이 적어 발표자가 범정부적 정책이 필요함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노화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를 위한 기초과학의 중요성과 기술 발전이 노인 돌봄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양한 이슈에 대해 기초과학, 공학, 사회과학적 접근을 시도해

봄으로써 노인 문제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국적 젊은 과학자들, 세션별 30분 이상 열띤 토론 국제적 리더십 확보 위한 일본의 노력 인상적 한국의 회원 선출 중요성 깨달아

총회와 컨퍼런스 틈틈이 젊은 과학자들의 교류를 위한 시간도 다수 배정됐다. 두 차례의 '라이트닝 토크'에서는 거의 모든 GYA 회원들이 자신의 일과 그 연구를 하는 이유를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고, '세계 카페 토론'이라는 세션에서는 '불멸의 정의는 무엇인가?', '언젠가 육체 없이 살 수 있을까?'와 같은 재미있는 질문 10가지에 대한 그룹토의도 진행됐다.

최승홍 교수는 "각 세션별 30분 이상의 토론 시간이 있었는데 일본, 영국, 독일, 아프리카 등 다양한 나라의 참가자가 각 분야 관

심을 열심히 질문하고 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젊은 연구자들 간, 또 국가 간 교류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이어 그는 "선진국 과학자들이 젊은 나이에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적극성이 눈에 띄었다"며 "일본 교토대학의 요코 박사가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아프리카에서 산모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참석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일본처럼 주제에 맞는 연구자들을 전략적으로 참석시키면 국가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교수는 GYA에 한국인 젊은 과학자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참관자로 초청된 거라 발표할 기회가 없어 한국을 홍보하지 못해 매우 아쉬웠다"며 "차세대 회원들이 GYA 회원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도 많은 국가에 한국의 과학 수준을 알리고 글로벌 리더십을 일찍부터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